

# 『삼관기』 이본들에 나타난 작품 구성의 특징

조윤희

한국학중앙연구원 인문학부 교수, 한국한문학 전공  
yjo@aks.ac.kr

- I. 머리말
- II. 한문본 『삼관기』의 구성
- III. 한글본 『삼관기』의 구성
- IV. 맺음말

## I. 머리말

『삼관기(三官記)』는 조선중기의 노론계 문인 이재(李縉, 1680-1746)가 지은 필기류 작품이다. 저자가 경험하거나 전해들은 이야기를 이관(耳官), 목관(目官), 심관(心官)의 세 항목으로 나누어 흥미롭게 서술하고 있다. 경험의 내용으로는 자신의 성장과정, 학문활동, 관직생활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저자 자신의 가족 및 그와 학문적·정치적 연고가 있는 이들에 얽힌 이야기들도 두루 다루어져 있다.

이 작품은 여타 야담 및 필기류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특정 방식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서술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실린 이야기들의 주제가 비교적 자신의 가계 및 당파의 내력, 그리고 그들 사이에 공유되는 가치관 등으로 집중되어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 이재의 『삼관기』는 한문본이 먼저 쓰인 것으로 보이며, 그 뒤 한문본을 저본으로 하여 한글본도 나온 것으로 생각된다. 한글본은 조선시대에 한글의 주 사용층 가운데 한 부류인 사대부가 여성을 독자로 상정하였던 것으로 이해된다. 특히 이재의 가문 또는 그의 가문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노론 가문의 여성 독자들에게 읽혔을 것으로 보인다. 한문본과 한글본은 저마다 공통의 구성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으면서도 곳곳에서 한문본은 한문본대로, 한글본은 한글본대로 이본마다 구성 및 서술상의 차이를 드러낸다. 이본마다 일정하게 목적 및 방향성을 가지면서 변화가 생긴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본고에서는 『삼관기』 이본들이 지니는 기본적인 내용 및 형식상의 특성을 감안하여 작품 구성의 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한문본이 한글본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구성상의 변화는 한글본만의 독자적인 의미를 부각시키는 특징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삼관기』를 구성하는 이야기들의 소재 및 주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저자 이재는 일화를 구성하는 인물의 특성에 관심을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필기류 작품들처럼, 이재 또한 저자 자신이 중요하게 또는 흥미롭게 생각하는 주제들을 중심으로 일화들을 선별하였으며, 주제별로 특성의 인물들이 해당 이야기의 중심에 놓이게 된다. 이재가 저자 자신과 정치적, 학문적으로 연고가 있는 주요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수 수록한 점은 남인 대 서인, 노론 대 소론 등의 당파적 갈등이 치열했던 숙종에서

영조 대에 이르는 정치 상황 속에서 쓰인 여타의 필기류들과 일정하게 공유되는 특징이라 할 수 있는데, 『삼관기』에서는 특히 노론계 사대부가 여성들의 강인한 성격이 부각되는 일화들이 적극적으로 수용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여성 인물 관련 일화가 작품 구성에서 차지하는 의미도 검토하게 된다.

이경희<sup>1)</sup>는 이화여자대학교 도서관 소장 한문본 『삼관기』를 바탕으로 이재의 행적을 요약적으로 재구성하고, 『삼관기』의 내용을 ‘시대적 상황의 기록’, ‘신변잡기담’, ‘가계인물담’으로 정리한 바 있다. 유혜자<sup>2)</sup>는 동국대학교 소장 한글본 『삼관기』를 내용에 따라 ‘분봉(分朋)과 당론(黨論)의 기사(記事)’, ‘과거(科擧)와 옥당잡기(玉堂雜記)’, ‘작자의 신변잡기’, ‘명사열전초(名士列傳抄)’ 등으로 분류하여 고찰하였다. 이 연구들을 통해 한문본 및 한글본 『삼관기』를 구성하는 주요 내용들이 정리·요약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삼관기』는 필사본으로 전해지면서 한문본 및 한글본의 여러 이본들이 존재하게 되었는데, 이제 이러한 이본들이 공통적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지향하는 구성상의 특징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이 검토가 이루어지고 나면 『삼관기』에 실린 개별 일화들의 서술 방향과 그 원리를 구명하고, 동시대의 다른 필기류와 『삼관기』 텍스트를 체계적으로 견주는 연구도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본고에서 논의되는 한문본 『삼관기』로는 장서각본(K2-2201, K2-2202, 2책), 국립중앙도서관본(이하 국도본, B12109-15, 1책)<sup>3)</sup>, 규장각본(奎5955-v.1~3, 3책)<sup>4)</sup>, 동국대본(814.5이72사 1~2, 2책), 이화여대본(이하 이대본, 920이812사 1~2, 2책) 등이다.<sup>5)</sup> 한글본으로는 서강대본(고서도61 v.1~3, 3책), 동국대본(814.5이72사 1~3, 3책), 규장각본(古0320-11, 1책), 국도본(BC古朝56-나150, 2책) 등을 다룬다.<sup>6)</sup>

1) 이경희, 「三官記攷」,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1984).  
 2) 유혜자, 「陶菴 李緯의 삼관기(三官記) 考究 - 그 내용을 중심으로」, 『無涯梁柱東博士古稀記念論文集』(탐구당, 1973); 유혜자, 「고전수필 <삼관기>考」, 『동악어문논집』 제23집(1988).  
 3) 국도본으로 두 종 더 참고하였으나(BC古朝56-나95, 4책; BC古朝56-나208, 1책), 본고에서 다루는 자료가 더 선본이라 판단되므로 이 자료만 논의에 포함시킨다.  
 4) 이 이본은 보경문화사(1989)에서 간행된 이재의 문집 『陶庵全集』에도 수록되어 있다.  
 5) 규장각에 소장된 『三官記 拾遺』, 김려(金鑣)의 『寒臯觀外史』에 수록된 『寒泉三官記』, 성균관대학교 소장 『陶菴三官記』 등도 검토하였으나 완질본이 아니라서 이번 논의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 II. 한문본 『삼관기』의 구성

### 1. 분목에 따른 구성과 이본별 차이

이재의 『삼관기』는 19세기 초에 그의 자손과 후인들에 의해 간행된 바 있는 『도암선생집(陶菴先生集)』<sup>7)</sup>과는 별도로 전해진다. 『삼관기』의 집필이 완료된 시기는, 작품에 실린 내용으로 살펴볼 때 저자의 말년인 1743년 이후로 추정된다. 이재의 『삼관기』 한문본 ‘심관’에는 “癸亥 九月”(1743년)로 시작되는 이야기가 있다. 이재가 1746년에 사망했으므로, 『삼관기』는 그의 생애 마지막 단계에 완성되었다고 하겠다.

『삼관기』는 필사본으로 전해지며 목판본이나 활자본은 확인된 바 없다. 한문본과 한글본이 모두 존재한다. 현전하는 한문본들은 이재의 원작이 거의 그대로 필사되어 전해진 것으로 보인다. 한문본은 대체로 ‘이관’, ‘목관’, ‘심관’이라는 분목(分目)을 두어, 그 아래에 자신이 들어서 알게 되었거나 직접 경험한 내용의 이야기들을 실어놓았다. 『삼관기』는 분목의 명칭인 ‘이관’, ‘목관’, ‘심관’에서 알 수 있듯이 저자 이재가 귀로 듣거나 눈으로 본 것, 그리고 마음으로 느낀 것을 두루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기록한 것이다.<sup>8)</sup> 그러나 이관, 목관, 심관 등의 분목 이름과 그 제목 아래 실린 내용이 모두 합치하는 것은 아니다. 들어서 알게 된 이야기가 이관에서 다수 확인되고, 이재 자신이 직접 체험한 내용이 목관과 심관에서 다수 확인되기는 하지만, 이 세 가지 분목의 명칭이 그 아래에 딸린 이야기의 내용을 명확하게 갈라짓는다고는 할 수 없다.

6) 국내 학술기관에 소장된 이재의 한문본 및 한글본 『삼관기』 필사본 제목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의 한국고전종합목록시스템에서 24종이 확인된다.

7) 이재의 문집 『陶菴先生集』은 그의 사후 50여 년이 지난 1803년에 손자 이채 등의 노력으로 정리자(整理字)로 간행되었다. 한국고전번역원에서는 규장각 소장본을 저본으로 하여 한국문집총간(194-195)의 『陶菴集』으로 간행하였다. 한국문집총간 『陶菴集』 해제 참고.

8) 이재보다 앞서 조극선(趙克善, 1595-1658)이 ‘三官記’의 제목으로 필기류 글을 썼으며, 이재의 『三官記』는 이 저술의 형식을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조극선이 말한 바와 같이 ‘三官記’라는 제목은 『맹자』 「고자(告子)」편의 ‘心之官則思’라는 구절에서 비롯되었다(『孟子』, 「告子 上」, “心之官則思 思則得之 不思則 不得也 此天之所與我者 先立乎其大者 則其小者不能奪也”). 조극선은 심관·이관·목관의 순서로 자신이 평소애 마음으로 느낀 것이나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하였다. 역사적 인물들의 행적, 예론 및 풍속에 대한 논의, 경전 해석과 관련된 문제 등을 서술하였다. 한국고전번역원 한국문집총간(속26)의 『治谷先生集』(권7-10)에 수록되어 있다.

자신이 직접 목격하지 않은 내용으로만 이관이 구성되지 않았으며, 목관 또한 자신이 목격한 내용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았다. 심관의 경우도 명칭으로 보면 자신이 마음속으로 생각한 내용이 서술되어 있는 것이라 하겠는데, 이는 사실상 자신이 목격한 내용의 서술이라고 하는 목관의 내용과 확연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

이관의 경우 저자 자신이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일로, 듣거나 배워서 알고 있는 내용이 다수 서술되어 있지만, 이재가 어렸을 때 직접 경험한 이야기도 들어 있다. 예컨대 어려서 대궐에 들어가 숙종과 인현왕후를 만났던 일이라든가 인현왕후가 폐출되었다가 복위하기까지 있었던 일 등이 이관에 수록되어 있지만, 이 이야기들은 들어서 안 내용이라기보다 자신이 어려서부터 경험한 내용이므로 목관 또는 심관과 어울린다고 할 수 있다. 목관에는 주로 저자가 과거에 합격하고 나서 관직생활을 하면서 보거나 들은 내용이 언급되었으며, 심관에는 저자 자신이 지나온 생애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내용들이 다수 수록되어 있는데, 목관과 심관의 두 분목에서는 사실상 이재 자신이 경험한 내용의 일화가 다수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이 둘을 서로 다른 범주로 확연하게 가르기가 어렵다. 심관에 저자 자신의 이력을 중심으로 한 내용들이 많다고는 하지만 이곳에서도 자기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와 자신이 살았던 시대에 벌어진 주요 사건들이 내용 구분 없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 저자 이재는 『삼관기』 분목의 명칭을 어느 정도 고려하여 그에 따라 이야기들을 갈래지으려고도 했으나, 분목별로 완벽한 구분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겠다.

본고에서 다루는 장서각본, 국도본, 규장각본, 동국대본, 이대본 등의 한문본은 비교적 정제되고 일관된 서체로 필사되어 있다. 한문본 이본들은 서로 다른 여러 필사자에 의해 필사되어 전해지다 보니, 이본마다 책의 제목 및 편제에 다소의 편차를 보인다. 한문본의 표지 서명은 ‘三官記’, ‘陶菴(庵)三官記’ 등으로 되어 있으며, 표지 속에서 텍스트가 시작되는 부분의 표제는 ‘三官記’, ‘陶菴李文正公三官記’ 등으로 되어 있다. 한문본에서 표제나 텍스트가 시작되는 곳의 제목으로는 ‘三官記’가 많이 쓰인 편이다. 표1에 5종의 한문본 『삼관기』 편차 방식을 정리하였다. 이본별로 표지 제목, 분목의 구성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표1-한문본 『삼관기』의 편차 방식

이본	책수	표지 제목	분목 표시	비고
장서각본	2책	三官記 乾	三官記 耳官 上 三官記 耳官 下	
		三官記 坤	三官記 目官 三官記 心官	
국도본	1책	陶庵三官記 全	三官記 耳上 三官記 耳下 三官記 目 三官記	• 심관을 가리키는 별도의 분목 표시 없음.
규장각본	3책	陶庵三官記 上 陶庵三官記 中 陶庵三官記 下	三官記 耳上 三官記 耳下 三官記 目 三官記 心	• 분목이 끝나는 부분에서 분책하지 않고 이야기 중간에 끊어서 임의로 분책함. • 보경문화사(1989)에서는 이를 합본하여 영인.
동국대본	2책	三官記 乾	三官記 耳上 三官記 耳下	• 각 분목의 명칭 아래에 '陶庵先生著'라고 하여 저자를 별도로 명기.
		三官記 坤	三官記 目 三官記 心	
이대본	2책	三官記 乾	陶庵李文正公三官記 耳官上下合部 陶庵李文正公三官記 目官	• 각 분목의 명칭 아래에 '牛峰李緯熙卿著'라고 하여 저자를 별도로 명기.
		三官記 坤	陶庵李文正公三官記 心官上 陶庵李文正公三官記 心官下	

이재의 『삼관기』 한문본 이본들은 이관, 목관, 심관 등의 분목을 기준으로 크게 세 부분 또는 네 부분으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이야기를 편차하는 방식이 대체로 일치한다. 이관은 내용이 많아서 보통 상, 하로 나뉜다. 한문본 『삼관기』에는 340여 조의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으며, 그 가운데 3분의 2에 달하는 2백여 조의 이야기가 이관에 실려 있는 것이다. 나머지 목관과 심관에 각각 70여 조가 서술되어 있다. 이대본은 이와 같은 여타의 이본들과 구별되는 독특한 구성으로 되어 있어 주목된다. 다른 이본의 '이관 상'을 이대본에서는 '이관 상하 합부'라 하였고, '이관 하'를 '심관 하'로 분류하여 작품의 맨 뒤에 두었다. 내용상 특별히 심관으로 편차해야 할 뚜렷한 근거가 보이지 않으므로 이는 이대본

필사자 또는 편집자의 오류라 생각된다. 이대본의 ‘심관 상’, 즉 다른 이본들의 심관은 그 이외의 분목들과 이야기의 구성에서 좀 더 뚜렷한 특색을 보이는 편이다. 유년시절부터 노년까지 이재 자신의 주요 이력을 중심으로 하여 구성되어 있다. 저자 6세 때의 이야기로 시작되며, 계해년(癸亥年, 1743) 이야기까지 언급된다. ‘余’로 시작되는 이야기가 많아 비교적 자신에 대한 서술에 집중한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이대본의 ‘심관 하’는 다른 이본들에서처럼 ‘이관 하’로 분류되는 것이 더 온당할 듯하다.<sup>9)</sup>

한문본 이본들은 분권 또는 분책하는 방식에서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 1책으로 이루어진 국도본은 한 면에 들어가는 내용을 많이 잡아서 같은 분량,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절반 정도의 쪽수(총 68장)에 담았다. 장서각본, 동국대본, 이대본과 같이 이관의 상·하를 한 책으로 묶고 나머지 목관과 심관을 한 책으로 묶어 전체를 두 책으로 구성한 경우가 많다. 규장각본과 같이 분목의 시작과 끝을 고려하지 않고 임의로 책의 두께를 생각하여 이야기의 중간에 분절하여 3책으로 분책한 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이다. 이는 첫 필사자 및 편집자의 분책 의도와는 상관없이, 작품이 전해지는 과정에서 다시 장정하면서 생긴 오류로 보인다.

한문본 『삼관기』는 대체로 저자 관련 정보를 거의 제공하지 않는다. 제공된다 하더라도 표지 제목 등에 저자의 호를 간략하게 언급하는 정도이다. 노론층 사대부가 중심이 되었을 한문본 독자들에게 이재의 『삼관기』는 많이 알려진 자료였을 것이며, 저자인 이재 또한 별도의 보충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노론계의 저명인사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본고에서 검토된 5종의 한문본 가운데 장서각본에서는 표지나 각 책의 텍스트 시작 부분에 저자를 언급하는 내용이 전혀 없다. 나머지 4종은 저자 이재의 이름, 호, 자 등을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다. 국도본과 규장각본은 표지 제목에 ‘陶庵三官記’라고 하여 호를 사용하였으며, 동국대본은 각 분목의 명칭 아래에 이재의 호를 사용하여 ‘陶菴先生著’라고

9) 이경희는 이대본을 기준으로 삼아 ‘목관’에 있는 과거(科擧) 이야기가 이재 자신의 급제와 관련된 것인 반면, ‘심관 하’에 있는 과거 이야기는 당시의 부패상을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고 하여 목관과 심관의 차이를 보여주려 하였다. 다른 이본들과 마찬가지로 이대본의 ‘심관 하’는 ‘이관 하’에 있어야 옳다고 한다면, 이경희의 논의는 이대본 ‘심관 하’가 ‘이관 하’로 편제되었을 경우로 상정하여 재론될 필요가 있다(이경희, 앞의 글, 12쪽).

하여 별도로 저자를 명기하였다. 이대본의 경우 다른 한문본에 비해 비교적 구체적으로 저자를 명시하였다. 이관, 목관, 심관 상, 심관 하 각각의 분목 명칭 앞에 ‘陶菴李文正公三官記’라는 텍스트 제목을 붙여 저자를 언급하였으며, 분목 명칭 아래에 다시 ‘牛峰李緯熙卿著’라고 하여 저자를 명시하였다. 호, 시호, 본관, 이름, 자를 모두 사용하여, 한문본 가운데 저자 정보를 가장 많이 제공한 이본이다. 한문본으로서 저자 관련 정보가 매우 중복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국도본, 규장각본, 동국대본, 이대본 등의 한문본은 필사 과정에서 필사자의 해석이 덧붙여진 모습이 이색적이다. 이들 이본의 필사자는 『삼관기』의 독자 입장에서 『삼관기』 내용 구성의 특징에 대하여 일부 논평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상 십여 조목은 반드시 정확한 것은 아니다. 이 가운데 특히 그 당시 조보(朝報)에 보이지 않고 그때의 일들에 대해서는 아득하여 들어서 알 수 있는 바가 아닌 것도 있다. 우연히 어렸을 때 들은 것을 비슷한 내용끼리 열거하여 다음에 기록하였는데, 외가의 일이 가장 많은 것은 외가에서 익히 들었던 일들이기 때문이다.<sup>10)</sup>

『삼관기』 내용 가운데 조정 내부에서 일어났을 법한 일들로서 조보나 다른 이야기를 통하여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객관적으로 입증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이다. 그리고 이제가 외가로 부터 들은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들 가운데 그의 외가와 관련된 일화가 많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 『삼관기』 서술에 저자의 특수한 입장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을 이들 이본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필사자의 개인적인 입장이 필사에 반영된 경우도 있다. 한문본 필사자가 『삼관기』에 등장하는 특정 인물과 각별한 관계에 있었을 것이라 추정하게 하는 대목이다. 예컨대 국도본, 규장각본 등은 필사 과정에서 일부 인명을 피휘(避諱)하였다. 필사자는 신여철(申汝哲, 1634-1701)의 이름이 등장하는 곳에서 그의 이름을 공란으로 남겨두었다.

申公○○三朝宿將 雖釋兵權 而闔門養威 有虎豹在山之勢 群凶甚忌之 不欲其在京 既出爲統制使 遞還未久 又出爲北兵師 [···] 甲戌四月二日夜三更 上特拜公訓練大將

10) “以上十數條 不必의係 此間特以其時不見朝報 於時事漠然無所聞知 偶以幼時所聞 以類相比 而錄之左 外氏事最多者 以其慣聞於外家故也”(국도본 장16b; 규장각본 장35b; 이대본 72면).



[...] 上特下內左符 使公佩之 [...] 又命摠察禁衛御營事 公兼佩三符 一國兵權盡歸於公 論者謂國朝三百年來所未有者

申大將 ○ ○ 武人也 獨言希載謀害國母 在法無赦 今謂世子私親而徑宥 則是私恩也 不可以私恩廢王法 以判義禁 屢入對爭之益力 然上從九萬言 希載不誅 遂成國家無窮之禍

‘○ ○’에는 신여철의 이름 ‘汝哲’이 생략되어 있다. 신여철은 『삼관기』에 등장하는 무인 가운데 이재가 매우 비중 있게 언급한 인물이다. 신여철은 숙종대 당쟁이 격화되던 시기에 서인 편에 서서 활약했으며, 그와 같은 모습이 위의 두 일화에도 반영되어 있다. 서인계 인사들이 복권되고 인현왕후가 복위되는 중요한 정치적 전환점이었던 갑술환국(1694년) 때 신여철이 보여준 모습이 이들 일화에 서술되어 있다. 이재가 지은 신여철의 신도비문에도 같은 내용이 실려 있다.<sup>11)</sup> 첫 번째 이야기는 갑술환국 때 신여철이 무인으로서 숙종의 신임을 얻어 병권을 장악했던 상황을 담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갑술환국 때 장희재에게 인현왕후 폐비를 모의한 죄를 물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신여철의 기상을 보여주려 하였다. 『삼관기』에서는 신여철 말고도 그 시대에 서인들에게 중요하게 인식되었던 인사들이 다수 등장한다. 그럼에도 유독 신여철의 이름을 피휘한 것은 필사자가 다른 어떤 인사보다도 신여철 또는 그 집안과 밀접한 연관이 있었던 인물이었음을 짐작케 한다. 신여철을 같은 방식으로 피휘한 국도본과 규장각본은 필사의 모본이 같거나, 필사자의 정치적 지향 또는 가문의 계통이 같은 경우라고 볼 수 있다.<sup>12)</sup>

## 2. 강인한 여성 관련 일화의 적극적인 수용

『삼관기』는 소론 및 남인과 노론 사이에 당쟁이 격화되고 정치권의 권력구도가 급변하던 시대의 중심부에 살았던 이재가 자신과 그 주변에서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저술에서는 정치·사회적으로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많이 발견된다. 이재는 당시 주요 정치세력

11) 이재, 「判中樞申公神道碑」, 『陶菴先生集』 권28.

12) 국도본과 규장각본은 맨 끝에 ‘崔奎瑞~’로 시작되는 이야기가 하나 더 추가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공통점을 지닌다.

인 노론의 중심인물이었으므로 그 나름대로 정치 중심부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다양하게 보여주려고 하였다.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초의 정치문화라든가 외직을 통해 경험한 지방의 사회상 등이 자세하며, 저자가 개인적으로 접했던 여러 인물들의 특징적인 면모가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기도 하다. 그뿐만 아니라 『삼관기』에서는 특히 강인한 의지를 지니고 과단성 있게 행동하는 여성 인물들에 대한 서술을 적극적으로 작품의 구성에 수용하고 있는 바, 이는 이재의 『삼관기』의 구성을 특징짓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그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이재는 인현왕후의 생질이었기 때문에 근거리에서 목격한 인현왕후의 모습이 여러 이야기에서 매우 자세하다. 왕비 자리에서 폐출되었다가 복위되는 과정이 저자의 어린 시절 기억을 바탕으로 묘사되었다. 그와 더불어 장희빈이 세자를 낳고 권력의 중심에 섰다가 다시 퇴출되는 과정도 서술하고 있다. 이재는 폐비 및 복위에 얽힌 일화들을 『삼관기』 곳곳에 배치하는 가운데, 인현왕후가 5년 동안에 폐비와 복위를 극적으로 경험하면서도 줄곧 의연했던 모습을 그려내고자 하였다. 인현왕후를 『삼관기』 서술에서 중요한 하나의 축으로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삼관기』에서는 당파문제나 정치와 관련된 이야기를 풀어갈 때만큼은 정쟁에 관계된 남성들을 서술의 중심에 두는 경우가 많지만, 가정 단위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국면에서는 대범하고 적극적인 품성을 지닌 여성 인물들이 특별히 부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노봉이 처음 대사헌이 되었을 때 마침 자녀 가운데 혼인하는 이가 있어 안채에 아녀자들이 많이 모여 있었다. 노봉이 아들을 불러 말하기를, “조대제학택 고모가 오시지 않았느냐? 내가 처음으로 대사헌에 제수되었으니 네가 들어가 말씀 드리거라.” 라고 하였다. 아들이 돌아오자 공이 묻기를, “고모가 무어라 말씀하셨느냐?”라고 하자, “듣기만 하시고 다른 말씀이 없으셨습니다.”라고 하였다.

노봉이 탄식하며 말했다.

“이 벼슬은 높고 빛나는 것이요, 우리 집에서는 근래에 없었던 일이며,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뒤로는 좋은 일이 있어도 아낄 곳이 없어서 내가 이 경사를 고모께 아뢰었거늘 조고모부가 근래에 여러 차례 이 벼슬을 하셨기에 고모께서 이 관직을 평범하게 여기시고 기뻐할 줄을 모르시니 도리어 두렵기만 하구나.”<sup>13)</sup>

13) 『三官記』, 「耳官 上」, 79화, “老峰超拜大司憲 適值子女婚嫁日 婦人多會於內舍 老峰呼兒子曰 今日趙大提學宅姑母來臨否 吾初拜大司憲 汝可入告也 及還出 問趙姑何語 曰聽而已 無別語 老峰歎曰 此職極高華 又是吾家近世所未有者 孤露以來 遇榮無可告處 此吾所以告慶於姑母者 而趙叔近來屢爲此職 視如尋常 亦不知爲可喜 還可懼也.” 이 부분에서

노봉 민정중(閔鼎重, 1628-1692)은 이재에게는 외종조부이다. 이재의 외숙이자 인현왕후의 부친인 민유중이 그의 아우이다. 『삼관기』에서는 이재의 외가 인물로 인현왕후와 민정중, 민유중 등이 여러 차례 언급된다. 민정중은 43세인 1670년에 대사헌이 되었으니, 이 이야기는 이재가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일로, 저자가 들어서 알게 된 이야기이다. 당시 서인 계열의 중심 인사였던 민정중은 이재에게도 매우 크게 인식되었던 존재였다. 이 일화에서는 그러한 민정중보다 낙정 조석윤(趙錫胤, 1605-1654)의 처 민씨가 보여준 태도에서 더 큰 위엄이 느껴진다. 대사헌에 제수된 기쁨을 나누고 싶어 하는 민정중의 다소 순수한 마음이 그 정도 벼슬로는 별다른 움직임 보이지 않는 고모 민씨의 태도에 압도되어 버리는 모습이 잘 묘사되어 있다.

『삼관기』에서는 자식의 성장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이재 모친의 성격도 눈에 띈다. 이재는 자신이 학문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어머니의 지대한 관심이 자리잡고 있었음을 누차 강조한다. 이재 나이 열여섯이었던 1695년은 갑술환국 직후이다. 이때 그의 어머니는 아들의 과거시험 준비를 위하여 화전(지금의 고양시 소재)에서 아현으로 이사한다. 시골에 살면 견문이 적을 수밖에 없고, 과장(科場) 출입이 불편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다.<sup>14)</sup> 이재는 스승을 선택하는 문제에도 어머니의 생각이 크게 반영되었음을 언급하면서, 어머니의 강인한 성격과 집안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다음과 같이 보여주었다.

계유년(1693)에 오씨 가문에 장가들었다. 이때 양곡공은 이미 타계하셨는데, 아들 다섯을 두셨다. 그 둘째 명중 오진주는 농암의 사위로 나와 동갑인데, 언제나 나에게 말하기를, 농암의 가르침과 학문이 성대하여 서울의 뛰어난 인재들이 대부분 그를 중용한다고 하면서, 나도 그곳에 가서 배우게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 중부께서도 내가 그곳에 가서 수학하기를 원하셨으나 유독 어머니께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며 말씀하셨다.

“김씨는 문벌이 너무 성하니 사람을 가르치는 데 또한 폐단이 없겠느냐? 말세인지라 스승 따르기를 삼가지 않을 수 없다. 하물며 너의 본가와 처가의 부형이 모두 스승으로 따를 만하니 다른 곳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다.”

이 때문에 마침내 가지 못하였다.<sup>15)</sup>

인용되는 한문본 원전은 장서각본을 기준으로 한다.

14) 『三官記』, 「目官」, 24화.

15) 『三官記』, 「心官」, 8화, “癸酉委禽於吳氏之門 時陽谷公已逝 有子五人 其仲晉周明仲

이 이야기에서 이재는 가족 가운데 중부(仲父) 이만성(李晩成)과 어머니 민씨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아버지를 일찍 여윈 이재에게 친가에서는 이만성이 아버지를 대신하는 인물이었다. 이재의 성장과 사회생활에 중부의 영향은 지대했다. 그러나 위의 인용에서 보았듯이 이재의 스승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만성의 의견은 이재의 어머니 앞에서 매우 위축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재의 성장 과정에서 어머니의 생각과 결정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어머니가 건넨 말을 요약하지 않고 직접화법으로 길게 풀어놓음으로써 어머니를 중부보다 훨씬 큰 권위를 가진 존재로 부각시켰다.

이재는 김수홍의 부인 윤씨에게서도 강인한 인상을 포착하여 묘사하였다. 김수홍은 이재의 중부인 이만성의 장인이다. 이만성의 장모 윤씨는 본래 글을 잘했던 터라 사위인 이만성이 젊었을 때는 그를 가르쳐야겠다는 태도를 보였다는 내용의 이야기가 있다. 젊은 사위를 낮추어 보면서 위엄을 느끼게 해주는 일화이다.<sup>16)</sup> 김수홍의 부인 나씨에 대한 서술에도 사대부가 여인의 강인한 면모를 보여주려는 이재의 의도가 일정하게 반영되어 있다. 김수홍의 부인은 관상을 잘 보는 이였는데, 아들인 삼연 김창흡의 의견에 따라 딸을 민진원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시집보냈다. 나중에 민진원의 실물을 보고 귀인의 상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는 화가 나서 “삼연을 주먹질”하였다는 내용이다.<sup>17)</sup>

『삼관기』에 수용된 여성들의 모습에서는 남다른 강인함과 의연함이 돋보인다. 위에 예시된 인현왕후, 조석윤의 부인 민씨, 이재의 어머니 민씨, 김수홍의 부인 윤씨, 김수홍의 부인 나씨 등은 이재의 친가 및 외가와 직간접적으로 깊은 인연이 있었던 이들이다. 모두 노론계 인사들의 집안이기도 하다. 이재는 『삼관기』에 서술된 다양한 정치적 일화들을 통해서 노론계 가문의 남성들을 긍정적으로 부각시킨 바 있다. 그는 노론계 가문의 여성 인물들에 대해서도 그들이 의사결정이나 처신에서 보여준 비범한 모습을 긍정적으로 강조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農巖之婿 與余同庚 每爲余道農巖教學之盛 洛中賢俊多從之游云 於余嘗有攛掇之意 吾仲父 亦欲使去受學 獨先此以爲不可曰 金氏文華太勝 教人無亦有弊否 末世從師不可不慎 況汝兩家父兄 皆可師法 不必他求 是以 不過往焉.”

16) 『三官記』, 「耳官 上」, 56화.

17) 『三官記』, 「耳官 上」, 57화. “삼연을 주먹질”하였다는 표현은 한글본에서 왔다.

### III. 한글본 『삼관기』의 구성

한글본 『삼관기』의 표지 제목은 규장각본에서 ‘三觀記’라고 붙인 것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한문본을 따라서 ‘三官記’를 쓰고 있다. ‘三觀記’는 필사자가 ‘三官記’의 본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오류이다. 텍스트가 시작되는 부분의 제목으로 서강대본에서는 ‘도암선싱삼관기’를 쓰고 나머지는 ‘삼관기’를 사용했다. 서강대본의 경우는 별도로 원저자 이재에 대한 소개가 없기 때문에 제목에서라도 ‘도암선싱’이라고 하는 수식어를 통하여 원작자를 표시하는 것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글본 『삼관기』는 규장각본이 1책, 국도본이 2책으로 되어 있으며, 동국대본과 서강대본은 모두 3책이다. 한문본에서 이관, 목관, 심관

표2-한글본 『삼관기』의 구성

이본	책수	표지 제목	분목 표시	비고
규장각본	1책	三觀記 (도암삼관기)	삼관기권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삼관기권지상’에 앞서 ‘도암삼관기’라는 제목 아래 작가 및 작품 소개를 위한 서언 부분이 미려됨.</li> <li>• ‘삼관기 이’가 한문본 ‘이관 하’ 뒷부분부터 시작.</li> <li>• 인물 약전 추가.</li> </ul>
			삼관기이	
국도본	2책	三官記 乾	삼관기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삼관기 상’ 하단에 저자 간략 소개.</li> <li>• ‘삼관기 하’가 한문본 ‘목관’ 제3화부터 시작.</li> <li>• 인물 약전 추가.</li> <li>• 만동묘비문 추가.</li> <li>• 일부 인명을 참치로 가려 피휘함.</li> </ul>
		三官記 坤	삼관기 하	
동국대본	3책	三官記 天	삼관기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삼관기 상’ 하단에 저자 간략 소개.</li> <li>• 인물 약전 추가.</li> <li>• 「니녕부스부인김시상언」 추가.</li> </ul>
		三官記 地	삼관기 중	
		三官記 人	삼관기 하	
서강대본	3책	三官記 天 (삼관기권지일)	도암선싱삼관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지 뒷장에 한글제목 별도 표기 (예, ‘삼관기권지일’).</li> <li>• ‘이관’에 대한 표시 따로 없음.</li> <li>• ‘심관’ 시작 부분이 한문본과 다름.</li> <li>• 인물 약전 추가.</li> <li>• 만동묘비문 추가.</li> <li>• 각 권 끝에 필사 시기 표시.</li> </ul>
		三官記 地 (삼관기권지이)	도암선싱삼관기 도암선싱삼관기 목관	
		三官記 人 (삼관기권지삼)	도암선싱삼관기 심관	

등의 구분을 명시했던 것과는 달리 한글본에서는 그러한 분목별 서술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서강대본의 경우 이례적으로 분목 표시가 되어 있으나, 그 경우에도 작품의 시작 부분인 ‘이관’은 표시하지 않고 ‘목관’과 ‘심관’만 표시해두었다. 또한 서강대본 ‘심관’은 한문본 ‘목관’의 뒷부분에 나오는 일화로 시작된다. 이처럼 한글본에 일부 분목 표시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한문본 원작의 구성방식을 각별히 유지해야겠다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글본 독자들에게 분목별 구분이 지나는 의미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 주요 일화의 내용만 제대로 전달되면 된다고 여겼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리고 한글본은 한문본의 완역이 아니라 이관, 목관, 심관에서 두루 이야기들을 추려내어 번역한 것이므로, 분목별로 분류하는 것이 더 이상 큰 의미를 지니지 않게 된 것이기도 하다.

한글본 시작 부분과 후반부의 구성은 한문본과 사뭇 다르게 편집되어 있다. 한글 필사본 이본들의 형태가 완성되는 과정에서 한문본 원저자인 이재의 의도가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가는 확인할 수 없다. 다만 한글본을 펴낸 사람은 한글본 독자가 한문본 독자와는 지적 정보 및 토대가 다르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가운데 한문본과는 일정하게 차이를 두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문본 독자를 대상으로 할 때와는 다른 목표의식을 가지고 편집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글본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삼관기』의 저자 이재와 『삼관기』 작품에 대한 간략한 소개로 시작된다. 한문본의 번역에 앞서 일종의 서언 형식을 갖추어 저자 및 작품에 대한 사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리고 한글본에서는 한문본의 목관과 심관에 실린 일화들 가운데 상당수를 버리고 그 대신 한문본에는 없는 새로운 이야기들을 추가하였다. 조선초에서 중기까지의 명 재상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의 약전(略傳)이 소개되었다. 그리고 국도본과 서강대본은 맨 뒤에 이재가 쓴 만동묘(萬東墓)의 비문을 번역하여 실었으며, 동국대본은 이이명(李頤命, 1658-1722)의 처 광산김씨의 상소문을 추가하였다. 이와 같이 한글본이 전승되는 과정에서 한문본과는 달리 한글본 이본만이 고유의 특성을 간직하며 새롭게 구성된 양상을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 1. 서언의 추가: 작품의 사전 이해를 위한 정보 제공

한글본의 시작 부분은 이본들마다 차이를 보인다. 독자에게 주는 정보의 양이 저마다 다르다. 저자에 대한 설명이나 작품에 대한 정보를 제각기 정도를 달리하여 제공한다. 한글본 필사자 또는 편집자의 입장에서 독자의 입장을 고려하는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강대본은 저자 및 작품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는 경우이며, 국도본, 규장각본, 동국대본은 텍스트 시작에 앞서 일정하게 저자 또는 작품에 대하여 설명하는 부분을 두고 있다.

서강대본은 제1책 텍스트의 시작 부분에 단순히 '도암선생삼관기'라는 표제만 붙이고 한문본의 첫 번째 이야기를 번역하여 실었다. 첫 권을 한문본과 거의 같은 형식으로 시작하고 있다. 저자나 작품 설명 어느 것도 제시하지 않았다. 마치 한문 독자와 동등한 수준의 한글 독자를 상정하고 있는 듯하다. 국도본과 동국대본은 제1책 텍스트 시작 부분의 제목 '삼관기 상' 아래에다 텍스트에 쓰인 것보다 작은 글씨로 저자에 대한 정보를 간략하게 제공하고 있다.

화전 니판서의 휘은 [redacted] 호는 한천이오 일왈 도암이니 이 책을 짓다 [국도본, 띄어쓰기 필자, 이하 같음]

화전 니판서의 명은 직오 즈는 회경이니 호는 한천이오 일왈 도암이니 이 책을 짓다 [동국대본]

국도본과 동국대본 모두 저자가 이재임을 명시하고 그의 자와 호를 간략하게 제시하였다. 『삼관기』 원작이 이재의 작품이라는 것을 모를 수도 있을 독자를 위한 최소한의 배려라고 할 수 있다. 국도본은 '휘은'이라고 한 다음에 저자 이재의 이름과 자를 침지를 오려붙여 가려두었다. 가려진 곳의 내용은 '직오 즈는 회경이니'이다. 저자의 이름을 피휘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국도본은 뒷부분에 이재의 「만동묘비(萬東墓碑)」를 번역하여 실으면서도 이재의 이름을 가려놓았다. 국도본의 필사자 또는 독자가 이재 집안의 사람이거나 그와 사승관계에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규장각본에는 저자 및 작품의 정보가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다. 국도본이나 동국대본은 '삼관기 상'이라는 텍스트 표제 아래에 저자

정보만 간략하게 서술하였지만, 규장각본에서는 첫 권의 표제인 '삼관기 권지상' 앞에 별도로 비교적 긴 분량의 서언 단락을 마련하였다. '도암삼관기'라고 하여 제목을 달리 쓰고 그 아래에 저자와 작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 도암삼관기

도암 성은 니오 명은 직오 즉는 회경이니 별호는 도암이오 일호는 한턴이라 숙종도 경신의 급제하야 옥당 남상 독서당 다하고 동년의 흑퇴하야 고양 숫밭치라 흥는 덕 퇴스하야 흑자를 모화 강학하니 일컫기를 도암선성이라 흥더라 이 책을 지어 금초앗더니 즉손의 덕에나 세상의 퍼진 후 집집이 벗겨보니 인물을 평논하고 고스를 논난하야 보기 조흔 문지라 즉금은 금초지 못하게 되엇더라○삼관이라란 말은 귀로 드른 거손 남의 소문 이관이라 흥고 눈으로 본 거손몸소 경녀한 것 목관이라 흥고 마음의 심각하는 거손 심관이라 흥니라 벼슬은 정경의 문형 무지 흥니라정경은 일품이요

저자 소개, 『삼관기』가 전승된 경위, '삼관기'라는 제목의 의미 등 세 가지를 정리했다. 저자에 대한 설명에는 성명과 자호 소개에 머물렀던 국도본이나 동국대본에서와는 달리 그의 행적까지 비교적 구체적으로 서술했다. 이재의 관직생활 내용과 함께 그가 화전으로 은퇴한 뒤의 활동을 소개하였다. 『삼관기』가 저술된 후 처음에는 이재의 집안에서만 보관되어 외부로 알려지지 않던 것이 후대에 와서 서로 필사하여 세상에 두루 전해지게 되었다고 하면서 그 전승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삼관기』에서 이재가 뛰어난 필치로 인물과 사건을 논평하였기 때문에 많은 이들에게 읽히게 되었다고 첨언하였다. 그리고는 『삼관기』를 구성하는 이관, 목관, 심관의 뜻을 풀어주었다. 한글본 독자들의 눈높이를 고려하여 그들이 『삼관기』 원저자와 『삼관기』의 특징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한 모습은 규장각본만이 지니는 특징이라 하겠다.

## 2. 본문의 추가: 인물 약전, 「만동묘비」, 「니녕부스부인 김시 상언」

### 1) 인물 약전의 추가: 덕성 함양의 교범

한글본 『삼관기』에서는 공통적으로 한문본 『삼관기』의 일화를 선별 번역하여 실은 다음 조선중기까지의 명 재상을 비롯하여 흥미로운 일화를 남긴 인물들의 이야기 34-36종을 추가로 소개하고 있다.



### 표3-인물 약전 내용

1	세종조 정승 허중: 중국 사신이 왔을 때 의연한 풍도를 보여줌.
2	중종조 정승 정광필: 정승으로 30년 있으면서 과묵하고 검소함.
3	명종조 정승 이준경: 명종 사후 후궁 친숙들의 권력 농단을 단속함.
4	세종조 정승 황희: 공조판서 김종서가 자신에게 사사로이 음식 대접한 것을 꾸짖음.
5	중종조 정승 이행: 세자를 꾸짖어 효제를 강조함.
6	선조조 정승 홍인필: 병조판서 이이에게 보여준 자신의 품모.
7	이준경: 대사헌 백인걸이 평복 차림으로 대신인 자신을 찾아왔다고 나무람. [*추가(동국대본, 국도본)] 홍문록에서 아들 이름을 지운 이준경
8	선조조 정승 이덕형: 동궁의 밀지를 돌려보내고 춘방을 통해 공식화하라고 함.
9	인조조 재상 이시백: 임금이 그에게서 꽃을 구하였으나 꽃으로 아침하지 않겠다고 하며 거절함.
10	성종조 구종직: 『춘추』를 암송하여 대사가간이 되고, 점쟁이 말대로 일품에 오름.
11	중종조 영의정 정광필: 기묘사화 때 남곤으로부터 조광조 일파를 구해줌.
12	한림 최세영: 조광조를 구하려고 정광필과 함께 힘을 다해 간언함.
13	남곤, 심정, 홍경주, 이장곤: 이장곤이 기묘사화 옥사를 늦춤. 조광조, 유운: 조광조를 위해 상소한 유운.
14	[*추가(동국대본, 국도본)] 성종조 성균관 유생 이목유: 성종의 병을 낫게 하려고 기도하는 무당을 이목유가 다른 유생들과 함께 때리고 나서 홀로 지수하자 성종이 용서해줌.
15	훈련도제조 유성룡: 경연에서 조충 사용법을 말하다가 경술하다는 비판을 받고 그 비판을 수용함.
16	사관 이유장: 선조에게 직언함.
17	세종조 정승 허조: 늙어서도 형제간 우애가 돈독함.
18	황수신과 황치신(황희의 아들): 근엄하던 황희가 눈길에서 넘어진 이들을 보고 비로소 웃음을 보임.
19	호안공(황치신) 형제: 동산에 달린 감을 나누어 먹은 우애.
20	근세 재상 중에 우애로 이름난 안현과 이준경: 안현은 존경에 바탕을 둔 우애, 이준경은 사랑에 바탕을 둔 우애를 보여줌.
21	단천군수 조언형, 함경감사 강훈: 죽마고우로서 강훈에게 술자리를 베푼 뒤 단교하고 떠난 조언형.
22	중봉선생 조현: 이이, 성혼을 논박한 이발과 단교함.
23	조현: 기축년 정여립의 옥사때 잡혀가는 이발의 모친을 위해 갖옷을 준 조현.
24	참판 홍일동: 홍일동과 심선의 기이한 만남.
25	영의정 황희: 김종서를 인재로 키우고자 엄하게 대함.
26	평강현감 오윤겸: 오윤겸의 탁월한 다스림에 감동한 강원감사 정구.
27	조광조: 지치를 시행한 조광조 일파가 제거된 상황.
28	중종조 정승 김안로: 품모는 고결하나 선류(善類)를 죽인 김안로.
29	퇴계 이황: 경연에서 서류를 등용하라고 간언한 퇴계.
30	선조조 최영경: 비상한 최영경의 기상에 감동한 성혼.
31	황희 적성훈도 시절: 소 앞에서 말조심하라는 노인에게 감복.
32	태종조 최윤덕: 소탈한 마음으로 백성의 말에 귀 기울임.
33	정광필: 자신을 무고한 김해 수령에게 복수하지 않음.
34	세종조 김수온: 종을 인자하게 대함.
35	예종조 정승 상진: 타인의 장점만 보려 함.
36	성혼: 마을 사람들과 거리를 두어 공경을 받음.

홍문록에서 아들 이름을 지운 이준경의 일화(7)와 성종조 성균관 유생 유덕유의 일화(14)는 동국대본과 국도본에만 추가된 것이며, 나머지 34종의 이야기는 한글본 이본들이 모두 공유하는 내용이다. 덕이 있고 우애가 있으며, 공명정대한 삶을 살았던 정승들의 모습을 서술한 이야기가 전체의 절반에 해당한다. 이유징, 조언형, 홍일동 등 특이한 행적을 남긴 경우도 소개되었으며, 조광조를 비롯한 신진사람들이 남곤, 심정 등 훈구세력에 의해 화를 입은 기묘사화에 얽힌 이야기, 동인과 서인의 반목에서 비롯된 기축옥사에 얽힌 이야기 등 정치적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도 여러 편 있다.

이들 이야기를 통하여 한글본 독자들에게 귀감이 되는 삶의 자세와 덕목을 보여주려 했다고 할 수 있다. 한글본 독자가 사대부 집안 여성, 특히 노론계 가문의 여성들로 추정되는 바, 여성 독자들이 자녀교육에 참고하면 좋겠다 싶은 내용들을 실어놓은 것으로 생각된다.

## 2) 「만동묘비」의 추가: 존주의리의 공유

서강대본과 국도본의 맨 뒤에는 한문본에는 없는 이재의 「만동묘비(萬東墓碑)」<sup>18)</sup>가 번역되어 실려 있다. 서강대본은 이를 「만동스비명」으로, 국도본은 「만동묘비」로 번역하였다. 두 이본 모두 한글본 독자들이 번역문을 수월하게 읽을 수 있도록 배려하되 조금씩 형식을 달리하였다. 서강대본에서는 가급적 한문 어구들을 한글 어휘로 풀어서 번역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도본은 경우에 따라 한자어를 한글 어휘로 풀어쓰기도 하고 한자어의 발음을 그대로 옮겨적기도 하였다. 국도본에서는 원문의 한자어 발음만 가지고서는 그 뜻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어렵겠다고 여겨지는 부분에서 협주(夾註) 형식으로 해당 단어를 보충설명한 것이 특징적이다. 문맥상 어구의 의미를 한글 독자가 이해하지 못할 법한 경우에도 작은 글씨의 협주로 설명을 보태었다.

빈신(빈후) 신하 텃즈게 스스로 일컫는 말이 빈신이라 이치  
 방인(방나) 스티이 칭각(칭)을  
 고향(고향)에 나라(나라)일(일)흠(흠)을(도선)이라 흥(흥)신(신) 말(말)습(습) 주(주)시고

원문에서는 괄호( ( ) ) 안의 협주 내용이 괄호 없이 두 줄의 작은 글씨로

18) 이재, 『陶菴先生集』 권30에 ‘萬東墓碑’의 제목으로 원문이 실려 있다.

기록되어 있다. 예시된 ‘비신(陪臣)’이나 ‘방인(邦人)’의 경우에는 그 단어가 사용된 문맥을 모르거나 단어를 구성하는 한자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뜻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단어의 풀이를 주로 달아주었다. ‘고황제 나라일홈을 주시고’라는 어구도 문맥에서 뜻하는 바를 한글 독자가 모를 수 있으므로 ‘나라일홈을’ 아래에 주를 달아 조선(朝鮮) 건국 시에 명나라 태조 고황제가 나라 이름을 ‘조선’이라고 정해준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을 보탠 것이다.

국도본은 만동묘비문 가운데 특정 인물의 이름자를 가려 피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비문을 작성한 이재를 비롯하여, 노론의 거두 송시열과 송시열의 문인이자 이재의 외종조부인 민정중 등의 이름을 첨지로 가렸다. 만동묘비문의 내용을 살펴볼 때, 국도본에서는 화양동에 만동묘를 세운 노론의 영수 송시열, 이 만동묘의 비문을 쓴 이재, 명나라 마지막 황제 의종의 어필 ‘非禮勿動’을 북경에서 구해와 화양동 바위에 모각(摹刻)할 수 있도록 기여한 민정중의 공로를 모두 기리고자 했으며, 그 과정에서 그들의 이름을 피휘했음을 알 수 있다.

의종의 어필이라고 전해지는 ‘非禮勿動’을 충청도 괴산의 화양동 절벽에 새긴 것은 1674년의 일이다. 송시열은 1689년 권상하 등 노론계 제자들에게 존명배청(尊明背淸)의 의리를 되새길 수 있도록 화양동에 만동묘를 세우라는 유지를 남겼으며, 만동묘 건립의 뜻은 1703년 권상하, 민정중, 정호 등에 의해 이루어졌다. 만동묘비의 내용에 보이듯이 이재는 그로부터 43년 뒤에 묘정비문(廟庭碑文)을 썼으니 이재 자신이 타계하기 직전에 있었던 일이다.

새롭게 동아시아 최고의 세력으로 떠오른 청나라를 겉으로는 인정할 수밖에 없더라도 멸망한 명나라를 영원히 중화의 적통으로 높이겠다는 존주의리(尊周義理)는 송시열 이후 노론계 인사들이 한결같이 견지했던 자세였으며, 만동묘와 만동묘비는 그러한 시대정신을 담은 상징물이었다.<sup>19)</sup> 한글본에 만동묘비문이 들어간 것이 한문본 『삼관기』의 저자 이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어느 단계에선가 필사자에 의해 삽입된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 다만 규장각본과 동국대본에는 없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필사 전송의 과정에서 한글본 필사자 또는 편집자의

19) 박철상은 만동묘와 의종 어필 ‘非禮勿動’의 상징화 과정에 대하여 논한 바 있다. 박철상, 「화양동에 새긴 송정어필」, 『문헌과해석』 17(2001), 90-98쪽.

의도에 따라 삽입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국도본의 필사자 또는 편집자는 이와 같이 형성된 노론의 사상적 기반을 「만동묘비」를 통하여 공유해야겠다는 투철한 사명감을 가질 만큼 노론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을 것이며, 이재, 송시열, 민정중, 민유중 등의 이름을 피휘한 것으로 볼 때 국도본의 소장자(또는 독자)는 특히 이재의 가문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인사였을 것으로 생각된다.<sup>20)</sup>

한글본 『삼관기』의 내용이 노론계 가문의 한글 독자층(즉 여성)을 주요 대상으로 삼았을 것으로 추론되는 바, 국도본의 편집자는 송시열 이후 노론을 특징짓는 핵심사상으로 자리잡은 대명의리론(對明義理論)을 여성 독자에게까지 역설하고자 했다고 할 수 있다. 여성도 일정하게 자녀교육을 담당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18세기 중반 이후 존명배척의 대명의리론이 이전과 비교하여 약화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노론의 영수 송시열에 의해 주창되고 그 문인들에 의해 계승된 존주의리가 여전히 노론들 사이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방향으로 꾸준히 효력을 유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 3) 「니녕부스부인 김시 상언」: 사대부가 여성의 역할 강조

동국대 소장 한글본 『삼관기』 마지막 권 '삼관기 하'의 끝에는 서강대본이나 국도본과 달리 「니녕부스부인 김시 상언」이 실려 있다. 이 글은 신임옥사(1721-1722년) 때 노론 4대신의 한 사람으로서 숙청된 이이명의 처가 영조 앞으로 올린 상소문이다. 18세기 초 신임옥사의 소용돌이를 겪었던 노론 인사들이나 그들의 후예들에게라면 많이 알려졌을 법한 사언의 글이다. 『영조실록』에서까지 언급되고 있다.<sup>21)</sup>

이이명의 처 광산김씨는 김만중의 딸이다. 경종 즉위 후 남편 이이명은 노론 인사들과 함께 훗날 영조가 될 연잉군을 세제로 추대하고 뒤이어 대리청정까지 시키려는 계획을 세웠으나, 소론 세력에 밀려 숙청되었다. 이이명의 아들 이기지도 이 사건에 연좌되어 죽었다. 이기지의 아들 이봉상 또한 이때 열여섯의 나이로 죽임을 당할 상황이었으나, 미리 그 정황을 파악한 그의 조모 김씨가 도피시켜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20) 한문본 『삼관기』의 내용을 번역한 부분에서는 이재, 민정중, 송시열의 이름과 함께 이재의 외조부인 민유중의 이름도 피휘하였다.

21) 『영조실록』 1년 5월 9일조.

이봉상 또래의 사내종이 그를 대신하여 백마강에 몸을 던져 죽었고 그 시체를 이봉상의 것이라고 꾸며 검시를 받아 위기를 넘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씨의 상소문은 영조 즉위 후에 신임사화에 희생된 노론 인사들이 복권되는 과정에서 작성되었다. 이봉상의 종조부이자 이이명의 아우인 이익명은 유배에서 풀려난 다음 날인 1725년(영조 1) 4월 25일 상소를 올려 이봉상이 죽음을 피해 살아 있다는 사실을 알렸으며, 영조는 그 죄를 묻지 않고 사흘 뒤인 4월 28일 이봉상을 공릉참봉(恭陵參奉)에 제수하였다. 그 뒤에 바로 김씨의 상소가 이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같은 해 5월 9일자 『영조실록』에 상소의 내용이 요약되어 있다. 김씨는 대를 잇도록 하기 위해 손자 이봉상을 형벌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밖에 없었던 가족사를 상소문에서 설명하였으며, 이봉상에게 이미 선처가 베풀어져 벼슬까지 내려졌지만 그를 피신시킨 자신에 대한 처벌만큼은 감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영조는 김씨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하였다.

김씨의 상소는 당쟁의 구도 속에서 이이명 일가가 당면했던 위기와 그 위기를 극복하고 가계가 존속되는 과정을 역동적이고도 요약적으로 담아내고 있다. 김씨의 상소문이 추가된 동국대본은 우선 노론 중에서도 이이명과 긴밀하게 관련된 인사 또는 그 가문에게 읽히기 위한 한글본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상소문을 『삼관기』에 추가한 것은 이이명 일가의 가족사를 언급하겠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김씨의 상소문에 서술된 이이명 가문의 멸족위기와 그 처절한 극복과정은 노론 전체가 겪었던 상황의 제유적 표현이기도 했다. 그러므로 이 상소문은 이재의 『삼관기』 텍스트와 결합되면서 이이명 가문만을 위한 글이 아니라 노론 전체가 자신들이 겪었던 절박한 위기와 그 극복의 과정을 대변하는 공동의 텍스트로 삼을 수 있었던 것이다.

김씨의 상소문은 더 나아가 노론 내부에서만 아니라 사대부가에서 여성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하여 시사해주는 바도 컸으리라 생각된다. 신임옥사 때는 이사명 집안의 여인들처럼 역모에 직접적으로 연루되었다는 혐의를 받고 자결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었다.<sup>22)</sup>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던 김씨의 경우에는 가문을 위하여 자신의 역할을

22) 서경희, 「김씨 부인 상언을 통해 본 여성의 정치성과 글쓰기」,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2(2003), 47-48쪽.

적극적으로 찾아서 실천했던 인물이다. 가문의 존속 여부가 이봉상의 생존 여부에 달려 있다는 점을 알았던 김씨는 이봉상의 도피계획을 주동했으며, 정치국면의 반전으로 영조가 왕위에 오르고 노론이 복권되어 문제가 긍정적으로 일단락된 상황에서도 상소문에서와 같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봉상 보호 논리를 펼쳤다. 어찌 보면 김씨의 상언은 미래에 다시 닥칠 수 있는 또 다른 고난을 내다보고 작성한 안전장치였는지도 모른다. 이 상소문이 작성되고 나서 2년 뒤에 또 정치적 상황이 바뀌어 이봉상은 다시 시련을 겪었고, 그에 따라 김씨는 또다시 상소문을 작성해야 했다. 정미환국(1727년)의 탕평 국면에서 다시 요직을 차지한 소론은 과거에 있었던 이봉상의 도피는 이유 불문하고 왕명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처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급기야 1727년 10월에 김씨는 두 번째 상소문을 쓴다.<sup>23)</sup> 두 번째 상소문에서 김씨는 이봉상을 도피시킨 자신에게 죄가 있고 이봉상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다는 점을 1차 상소문에서와 같은 논조로 반복하여 주장한다. 영조도 김씨의 주장과 같은 논리를 동원하여, 이봉상은 도피할 당시 어린 나이였으므로 의사결정을 할 능력이 없었다고 하면서 그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려 했지만, 결국 유배를 보내는 것으로 마무리한다.<sup>24)</sup> 김씨의 두 번째 상소문을 영조가 보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두 편의 상소문을 통하여 김씨가 가문의 존속과 손자의 보호를 위해서 했던 역할이 얼마나 컸던가는 확인하고도 남음이 있다.

이봉상 사건은 지루하리만큼 오래도록 조정에서 노론과 소론 사이의 논쟁거리로 자리잡았기 때문에 세인의 관심을 더욱 많이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럴수록 그의 조모 김씨의 상소문과 가문을 위한 역할도 세간에 언급되었을 것이다. 이봉상 사건의 전개과정은 영웅소설에서 주인공이 시련을 극복하는 서사구조와 매우 유사하다.<sup>25)</sup> 동국대본 『삼관기』의

23) 두 번째 상소문의 전문이 임형택의 논의에서 소개되었다. 임형택, 「김씨부인의 국문 상언(上言) - 그 역사적 경위와 문학적 읽기」, 『민족문화사연구』 25(2004), 362-367쪽.

24) 영조 3년(1727년) 10월 24일의 일이다. 『영조실록』에 따르면 그 해 9월 12일부터 이봉상 문제가 다시 거론되었고, 10월 24일 영조는 이봉상을 절도(絶島)에 안치하는 것으로 문제를 마무리한다. 그러나 이봉상이 유배 간 상황에서도 조정에서는 처벌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과 감형해야 한다는 주장은 계속 맞섰다. 영조는 이봉상에 대한 형벌을 낮추어야 한다는 논의에 힘을 실어주려 했지만, 그의 유배생활이 끝난 것은 1740년의 일이다. 『영조실록』에는 1736년 6월 3일까지 이봉상 문제를 처리하는 건에 대하여 언급된다.

25) 임치균, 「이봉상 사건과 영웅소설」, 『문헌과 해석』 17(2001), 139-147쪽.

독자라면 김씨의 상소문을 읽으면서 그러한 영웅적 인물의 탄생이 여성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까지 이를 수 있다. 가문의 보호와 영웅의 탄생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김씨의 의연한 모습은 그가 쓴 상소문으로 대변되어 영조에게뿐만 아니라 『삼관기』 독자들에게까지 정치적 호소력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sup>26)</sup> 요컨대 서강대본과 국도본에 번역된 「만동묘비」가 급변하는 정치적 국면 속에서도 면면히 이어져 온 논문의 사상적 기반을 확인시켜주는 담론으로 작용했다면, 김씨의 상소문은 언제 이이명 가문과 똑같은 상황이 닥칠지 모르는 당시의 사회상황에서 여성이 한 가문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에 대하여 부각시키는 기능을 했다고 하겠다.

### 3. 필사 말미의 부기: 전승 맥락의 확인

동국대본의 경우 한글본 첫 권인 「삼관기 상」의 내용이 다 끝나고 나서 텍스트와 별도로 흥미로운 문장이 하나 첨부되어 있다. 한글 필사본의 유통 양상과 독자에 대하여 추론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된다.

삼관기 삼권으로써 특별이 너 손녀 니실을 주느니 것 제목은 우리 뭇 오라바님 친필이시니 네 공경귀중하여 앓기라<sup>27)</sup>

이 인용문의 필체와 동국대본 본문 텍스트에 쓰인 필체는 서로 다르다. 두 부분은 서로 다른 사람이 썼다. 따라서 ‘손녀 니실’에게 『삼관기』를 전해준 여인은 한글본 『삼관기』의 필사자가 아니고, 부기(附記)만 기록한 것이다. 한글본 『삼관기』의 다른 이본들과 마찬가지로 동국대본은 표지 제목이 한자로 ‘三官記’라 표기되어 있다. 부기를 쓴 여인은 필사된 한글본에 표지 장정을 한 다음, 별도로 ‘뭇 오라바님’으로부터 표지 제목을 받았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표지 제목, 한글본 텍스트, 「삼관기 상」의 끝에 부기된 내용은 쓴 사람이 각기 다르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인용문에서 ‘손녀 니실’에게 『삼관기』를 전해주고자 했던 조모가 누구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이 여인이 한문본의 저자 이재의 여동생일

26) 김씨 상소문의 정치적 담론화 양상에 대해서는 임형택, 앞의 논문(2004), 368쪽 및 서경희, 앞의 논문(2003) 참고.

27) 동국대본, 「삼관기 상」, 52장.

것으로 보는 논의도 있으나<sup>28)</sup>, 그렇게 볼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다. 이재가 쓴 자기 부모의 묘지문을 보면, 아버지 이만창과 어머니 민씨 사이에 태어난 이로 이재 자신만이 언급된다.<sup>29)</sup>

한글본의 표지 제목을 써주었다고 하는 ‘뭇 오라바님’이 누구인지는 현재로서는 분명하지 않지만, 사대부가 남성과 여성이 함께 능동적으로 이 한글본의 전승과정에 참여했다는 점만큼은 위의 부기를 통해 분명해진다. 손녀에게 『삼관기』를 전하는 여인의 오라버니는 적어도 한문본 『삼관기』를 읽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그는 자신의 여동생에게 한글본 『삼관기』의 표지 제목을 써줄 만큼 한글본의 전승에도 관심이 있었다. 이 필사본을 손녀에게 건네주면서 소중하게 보관하라고 한 여인은 매우 적극적으로 『삼관기』의 전승에 관여하고 있다. 조모가 ‘손녀 니실’에게 잘 간직하라고 한 대목에서, 한글본 『삼관기』는 사대부가 내에서 주요 한글 독자층인 여성들 사이에 전승되었을 것이라는 점을 다시금 확인하게 된다.

다음은 서강대본의 부기를 살펴보자. 총 3책으로 구성되어 있는 서강대본은 각 책의 필사를 끝내고 나서 행을 바꾸어 텍스트에서와 같은 서체를 사용하여 필사 시기와 필사본의 소유처를 명시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三官記 天 / 삼관기 권지일〉

신탁 납월 십사일 추필종서

홍의령덕 칙

〈三官記 地 / 삼관기 권지이〉

신탁 납월 념일 추필종서

홍의령덕 칙

〈三官記 人 / 삼관기 권지삼〉

신탁 납월 념이일 막필종서

홍의령덕 칙

이재의 『삼관기』가 나온 뒤로 신축년은 1781년, 1841년, 1901년 등이

28) 이경희, 앞의 논문(1984), 12쪽 및 유혜자, 앞의 논문(1973), 553쪽 참고. 1680년 9월 28일에 이재가 출생하고, 그의 나이 만4세가 채 안 되어 1684년 7월에 그의 부친 이만창이 사망한다. 이재의 형제에 대한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 그에게 누이동생이 있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29) 이재, 『陶菴先生集』 권46, 「先考墓誌」; 「先妣墓誌」.



다. 필사된 내용만 가지고는 이 가운데 어느 연도가 필사 시기인지 단정하기 어렵다. 『삼관기』의 경우 노론의 독자들이 관심 가질 내용이 많다는 점에서 노론의 당론 및 당파성이 비교적 강하게 남아 있을 법한 시기로 범위를 좁힌다면 1781년 또는 1841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리라 생각된다. 같은 해 선달 14일, 20일, 22일 세 단계에 걸쳐 『삼관기』의 필사가 완료되었다.<sup>30)</sup>

다음은 ‘홍의령택 칙’이라고 할 때 홍의령이 누구인가의 문제가 남는다. ‘홍의령’의 ‘의령’은 관직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 인물을 단정짓기 어렵지만, 이재의 『삼관기』를 읽을 만한 ‘홍의령택’으로는 홍백순(洪百順, 1557-1639) 집안을 거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홍백순은 송익필과 김장생을 섬기며 학문에 전념하였으며, 인조 때 잠시 의령현감(宜寧縣監)을 지낸 바 있다. 그는 효행으로도 이름이 났다. 홍백순의 효행 때문에 현종 대에 와서 그가 살던 마을에 정표하라는 명이 내려졌다.<sup>31)</sup> 홍백순의 사후 백년 가량 지난 1733년에 이재는 그의 종제(從弟) 이대심(李大心)과 함께 김장생 고택에 가서 홍백순이 김장생에게 보냈던 편지를 발견하고 종제를 시켜 베껴쓰도록 하여 홍백순의 현손 홍하서(洪河瑞, 1683-?)에게 전해주었다고 하였다. 이때 이재는 홍백순을 홍의령으로 지칭하고 있다.<sup>32)</sup> 홍백순은 지낸 관직이 거의 없으며 기록에도 의령현감을 지낸 것만 언급되어 오랜 세월이 흘러도 그 집안이 ‘홍의령택’으로 남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sup>33)</sup> 이재의 글을 보면 이재 집안과 홍백순의 현손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곧 홍백순의 후손가에서 이재의 『삼관기』를 가까이할 만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30) 인용된 부기(附記)의 ‘추필’ 및 ‘막필’에 대해서는 미상.

31) 『현종개수실록』 9년, 무신(1668), 12월 5일조 참고.

32) 이재, 『陶菴先生集』 권24, 「題大心所書洪宜寧先生百順與文元先生書後」, “住在癸丑春余與從弟維大心 往尋溪上故宅 暇日閱文元老先生家藏贖 得洪宜寧先生與文元公書 讀之而悅服之深 顯大心曰爾其書此以歸 歸而遺先生之玄孫正字河瑞”

33) 이재보다 앞서 그의 외조부인 민유중과 홍서봉의 문집에도 ‘홍의령’이라 지칭하면서 홍백순에 대하여 쓴 글이 보인다. 민유중, 『文貞公遺稿』 권10, 「上同春堂」; 홍서봉, 『鶴谷集』 권2, 「洪宜寧百順挽」.

## IV. 맺음말

본고에서는 18세기에 활동한 노론계 문인 이재가 저술한 필기류 작품 『삼관기』가 지니는 구성상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한문본과 한글본 『삼관기』의 주요 이본들을 대상으로 삼아 이본들의 공통적인 면모와 개별적인 특성을 검토하였다.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면서 글을 맺고자 한다.

『삼관기』는 한문본과 한글본의 두 가지 형식으로 오랜 세월 전승되면서 각각 기본적인 골격은 거의 동일하게 유지되었지만, 필사 전승된 까닭에 필사자나 편집자의 지향에 따라 각각의 이본들이 다른 모습을 띠기도 했다. 이재는 애초에 한문본을 저술하였으며, 한글본은 한문본의 일화들을 선별하여 번역하는 양상으로 파생되었다. 한글로 누가 번역하였는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한문본은 『삼관기』 저자 이재에 대하여 많이 알고 있었을 노론계 남성들이 주 독자층이었기에 저자에 대한 정보를 많이 제시하지 않았지만, 한글본 독자들에게는 저자에 대한 정보에 비교적 한계가 있었을 것이므로 한글본에서는 한문본에서보다 저자에 대한 정보가 많이 제공된다.

한문본의 경우 대체로 ‘삼관기’라는 제목의 뜻에 따라 ‘이관 상’, ‘이관 하’, ‘목관’, ‘심관’의 형식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이관에는 들어서 알게 된 내용, 목관에는 직접 목격한 내용, 심관에는 마음으로 느낀 내용 등과 같이, 각 분목에 한 종류의 일화들만 편입하지는 않았다. 분목의 명칭과 일화의 내용을 엄격하게 합치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은 아닌 듯하다. 한문본은 이본에 따라 텍스트 중간에 필사자의 논평 내용이 들어가기도 한다. 텍스트에 등장하는 특정인의 이름을 피휘하여 필사자가 그 인물과 각별한 관계에 있었을 것이라는 암시를 주기도 한다. 한문본을 구성할 때 이재는 강인하고 의연한 성격의 여성 인물들을 적극 수용하였다. 노론계 가문의 여성들이 갖춘 비범한 능력을 부각시키려는 뜻이 있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한글본에서는 대체로 이관, 목관, 심관 등 분목별 구성을 크게 고려하지 않았다. 한글 독자들에게 일화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분목의 구성이 큰 의미를 지니지 않기 때문이다. 한글본에서는 한문본 일화들 가운데 상당수를 누락하고 선별적으로 번역하였기 때문에 『삼관기』 원 텍스트의 내용은 한문본보다 훨씬 소략해졌지만, 그 대신에 조선중기까지의 명사

(名士)들에 대한 약전(略傳) 30여 조가 추가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한글 독자인 사대부가의 여성들이 텍스트에 제시된 명사들의 덕목을 자녀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가 엿보인다. 이에 더하여 서강대본이나 국도본처럼 이재의 「만동묘비(萬東墓碑)」를 번역하여 신거나, 동국대본처럼 이이명의 처 광산김씨가 영조에게 올린 상소문 「니녕부스부인 김시 상언」을 덧붙여가며 『삼관기』를 새롭게 구성하는 경우도 있다. 한글 독자들까지 논문의 사상적 기반인 존명배척의 존주의리를 공유하고, 논문에 사대부가의 여성이 가문의 존속에 기여하는 바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일부 한글본의 끝에는 부기(附記)가 첨가되어 필사 및 전승의 과정을 보여주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삼관기』 이본들의 구성 양상을 바탕으로 앞으로는 인물의 형상화 방식이나 일화의 서술원리를 구명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심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삼관기』를 포함한 18세기의 필기류 작품들이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었던 시대적 상황을 어떻게 문학적 담론안으로 끌어들이는가에 대한 검토도 병행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 참 고 문 헌

### 『三官記』 한문본

- 장서각본(K2-2201, K2-2202, 2책)  
국립중앙도서관본(B12109-15, 1책)  
규장각본(奎5955-v.1-3, 3책)  
동국대본(814.5이72사 1~2, 2책)  
이화여대본(920이812사 1~2, 2책)

### 『三官記』 한글본

- 서강대본(고서 도61 v.1~3, 3책)  
동국대본(814.5이72사 1~3, 3책)  
규장각본(古0320-11, 1책)  
국립중앙도서관본(BC古朝56-나150, 2책)

- 『英祖實錄』.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 D/B, <http://db.itkc.or.kr>.
- 『顯宗改修實錄』.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 D/B, <http://db.itkc.or.kr>.
- 閔維重, 『文貞公遺稿』.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 D/B, <http://db.itkc.or.kr> (한국문집총간, 137).
- 李緯, 『陶菴先生集』.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 D/B, <http://db.itkc.or.kr> (한국문집총간, 194-195).
- \_\_\_\_\_, 『陶庵全集』 人, 서울: 보경문화사, 1989.
- 趙克善, 『治谷先生集』.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 D/B, <http://db.itkc.or.kr> (한국문집총간, 속26).
- 洪瑞鳳, 『鶴谷集』. 한국고전번역원 D/B (한국문집총간, 79).
- 박철상, 「화양동에 새긴 승정어필」. 『문헌과해석』 17, 2001, 90-98쪽.
- 서경희, 「이봉상 사건의 전승과 의의」. 『한국고전연구』 14, 2006, 311-341쪽.
- \_\_\_\_\_, 「김씨 부인 상언을 통해 본 여성의 정치성과 글쓰기」.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2, 2003, 39-75쪽.
- 유해자, 「고전수필 <삼관기>考」. 『동악어문논집』 제23집, 1988, 209-248쪽.
- \_\_\_\_\_, 「陶菴 李緯의 삼관기(三官記) 考究 - 그 內容을 中心으로」. 『无涯梁柱東博士古稀記念論文集』. 서울: 탐구당, 1973, 551-569쪽.
- 이경희, 「三官記攷」.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4.
- 임치균, 「이봉상 사건과 영웅소설」. 『문헌과 해석』 17, 2001, 139-147쪽.
- 임형택, 「김씨 부인의 국문 상언(上言) - 그 역사적 경위와 문학적 읽기」. 『민족문화사연구』 25, 2004, 358-384쪽.

## 국 문 요 약

지금까지 이재(李穡, 1680-1746)의 필기류 작품 『삼관기(三官記)』와 관련해서는 일부 단일 이본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몇 차례 수행된 적은 있지만, 한문본 및 한글본 여러 이본들의 구체적인 면모는 물론 이본들의 작품 구성에 나타나는 전반적인 특징에 대한 검토도 거의 이루어진 바가 없다. 이재는 애초에 한문본을 저술하였으며, 한글본은 한문본의 일화들을 선별하여 번역하는 양상으로 파생되었다. 한글로 누가 번역하였는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한문본 및 한글본 『삼관기』의 주요 이본들을 대상으로 삼아 해당 이본들의 공통적인 면모와 개별적인 특성을 분석하였다.

한문본의 경우 대체로 ‘삼관기’라는 제목의 뜻에 따라 ‘이관’, ‘목관’, ‘심관’의 형식을 유지하였다. 한문본은 이본에 따라 텍스트 중간에 필사자의 논평 내용이 들어가기도 한다. 텍스트에 등장하는 특정인의 이름을 피휘하여 필사자가 그 인물과 각별한 관계에 있었을 것이라는 암시를 주기도 한다. 이재는 노론계 가문의 여성들이 갖춘 비범한 능력을 부각시키기 위해 강인하고 의연한 성격을 지닌 여성 인물의 일화들을 작품 구성에 적극 수용하였다.

한글본에서는 이관, 목관, 심관 등 분목별 구성을 크게 고려하지 않았으며, 한문본 일화들 가운데 상당수를 누락하고 이야기들을 선별적으로 번역하였다. 그 대신에 조선중기까지의 명사(名士)들에 대한 약전(略傳) 30여 조가 추가되었다. 사대부가의 여성들이 텍스트에 제시된 명사들의 덕목을 자녀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가 엿보인다. 이재의 「만동묘비」를 번역하여 신거나, 노론의 거두였던 이이명의 부인 김씨가 영조에게 올린 상소문을 덧붙여가며 한글본을 새롭게 구성하는 경우도 있다. 한글 독자들까지 노론의 사상적 기반인 존명배청(尊明背淸)의 정신을 공유하고, 노론계 사대부가의 여성이 당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가문의 존속에 기여하는 바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서두 부분에 작가 및 작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작품 끝에 작품 전송의 과정을 보여주는 부기(附記)를 첨가하는 것도 또한 일부 한글본의 특징이다.

**투고일** 2010. 7. 5.

**수정일** 2010. 8. 5.

**게재 확정일** 2010. 8. 11.

**주제어(keyword)** 삼관기(Samgwangji), 이재(Yi Jae), 구성(framework), 한문본(versions in classical Chinese), 한글본(versions in Middle Korean)